

## 남아시아연구 리뷰: 현황과 과제\*

이지은 인도국립 자와할랄 네루대학교 역사연구센터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남아시아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남아시아 연구에 시각과 방법론을 제공한 서구의 연구전통을 살펴본 바, 서구의 남아시아 연구전통은 오리엔탈리즘 시각을 통하여 비서구 세계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조성해왔다는 점이 특히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남아시아 연구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970년대 이전 2차 자료를 주로 이용한 종교와 철학 분야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 남아시아 연구의 중심을 이루다가 1970년대와 80년대에 학자들의 관심분야가 종교, 철학 이외에 정치 분야에까지 확대되는 시기를 거쳐, 1990년대부터는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로 연구가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지역연구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 이후의 연구 경향은 분과학문 전문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법치정립적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 지역전문가들이 주로 수행한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한 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전자는 이론의 도출을 위한 일반화를 목표로 하며, 보편성을 추구하는 성향을 갖는데 비하여, 양적인 비중에 있어서 주도적 흐름을 이루는 후자는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추구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의 남아시아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여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는 외부의 시각과 내부자적 시각의 공존과 균형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독자적 시각과 연구방법, 이론을 도출해내는 기반이 될 것이다.

주제어 남아시아, 인도, 연구방법론, 지역연구, 남아시아연구, 오리엔탈리즘

### I. 들어가며

지역적 범주로서의 인도라는 개념은 불교와 함께 우리에게 전해져서 ‘천축(天竺)’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우리의 지식체계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불교는 이제는 거의 우리 전통의 일부가 된 반면, 인도 또는 남아시아는 천 수백

\* 본고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1년 상반기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에서 사회를 맡으셨던 박명규 교수님과 토론을 담당하신 양승윤, 전제성 교수님의 지적과 평가로 수정, 보완에 큰 도움을 얻었다. 세 분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외에도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직, 간접적으로 필자의 시각을 바로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년 전 소수의 구법승들이 목숨을 걸고 기나긴 시간을 투자하여 찾아 나섰던 미지의 땅이며, 떠나면 곳으로만 우리에게 인식되었다. 근대화 이후 서양식 학문 체계가 도입되어 주류를 형성하면서 남아시아 지역에 관한 전통적인 지식은 자연스럽게 묻혔고, 이후 식민통치시기에 인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의 피식민지배국가로 이해되었다. 민족운동을 통해 해방을 염원하는 조선과 유사한 처지의 나라로 이해되면서 남아시아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화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반공산주의가 팽배했던 한국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남아시아는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보인 비동맹 외교정책이 친공산적 태도로 비춰지면서 우리나라의 적대국으로 인식되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인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불교와 관련된 연구와 철학 연구를 통하여 명맥을 유지해오다가 1970년대 국내 대학에 인도의 언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처음으로 개설되어 연구자들에게 기초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국내에서도 ‘세계화’ 담론으로 지역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고, 비슷한 시기 인도정부가 발표한 신경제정책과 이에 따른 인도의 경제개방은 남아시아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현실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 본격적 의미의 남아시아 지역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sup>1</sup>

본 논문은 본격적인 남아시아 연구가 이루어졌던 지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 학계가 해 온 연구는 어떠한 족적을 남겼는지 반추함으로써 현재 우리의 위치를 조명해 보고, 바람직한 연구 방향과 남아시아 연구의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지금까지 남아시아 연구를 주도해온 서구 학계의 지적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구 학계의 연구 동향을 살펴 보는 일은 남아시아 연구에 대한 시야를 확장하면서 동시에 우리 학계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남

<sup>1</sup> 1990년대 초반~중반 사이에 처음으로 남아시아관련 학회가 창설(한국인도학회, 1992년 설립)되고 학회지가 창간(『인도연구』, 1993년 창간)되었으며, 대학부설연구소가 설립(한국외국어대학교 남아시아연구소, 1995년 설립)되었다.

아시아 연구의 흐름을 알아본다. 연구사 검토와 함께 연구 주제의 다양화와 양적 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남아시아 연구의 현실적 필요성이 어떻게 변화하여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남아시아연구의 저류에 흐르는 우리의 시각과 태도를 점검하고, 한 지역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추구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주제가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나아가 그러한 융합의 가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II. 남아시아연구의 지적 계보

남아시아 지역은 그 문화권 밖에 위치하는 이들에게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주목받아 왔으며, 그 연구의 성과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방대하다.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으로 인하여 남아시아 문화권을 접하게 되었던 그리스인 메가스테네스(Megasthenes)는 기원전 4세기경 『인디카(Indica)』라는 남아시아의 지리와 역사, 민족지(民族誌)적 서술을 포함하는 저서를 남겼다. 이러한 전통은 남아시아 지역과 교류가 있던 아랍 세계로 이어져서 페르시아 출신의 알비루니(Al-Biruni)는 11세기 『인도연구서(Kitab fi Tabqiq ma l'il-Hind)』를 통해 ‘히말라야로부터 코모린 꽃까지’의 지역을 단일한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는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 다른 지역과의 비교문화 방법을 사용한 객관적 서술을 시도하였다(Ahmed, 2002: 99-101). 당시까지 남아시아가 지역 전체의 정치적 통일을 이룬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오늘날의 경계와 거의 일치하는 남아시아 전체를 연구단위로 인식하고 있다.<sup>2</sup> 이것은 남아시아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생

<sup>2</sup> 오늘날 남아시아 지역은 국가 단위로는 파키스탄,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를 포함하며, 자연적인 경계로 구분한다면 힌두쿠쉬 산맥을 북서쪽 경계로, 히말라야 산맥을 북동쪽 경계로 하여 인도양까지 뻗어 있는 지역, 즉 인도아대륙(Indian Subcontinent)과 남단의 섬인 스리랑카, 스리랑카에서 남서쪽으로 떨어져 인도양 상에 위치하는 몰디브섬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은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남아시아의 일부였으나,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남아시아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구축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 학자들 사이에서 인도에 대한 관심은 이보다 늦게 시작되었는데,<sup>3</sup> 근대적 언어학이 발달하면서 유럽언어들의 모어(母語)로서 인도 고전어인 산스크리트(Sanskrit)에 주목하게 되었고, 19세기에는 문헌학적 인도 고전 연구를 주축으로 하는 인도학(Indology)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유럽 학자들이 이끌어간 인도학은 19세기 유럽의 낭만적 오리엔탈리즘과 연결되어 ‘신비로운 인도’라는 이미지를 낳았다. 한편 유럽인들은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식민지 개척과 통치라는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상황과 맞물려, 식민지배자이자 권력자의 우월한 눈으로 남아시아 지역을 바라보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인도를(보다 일반적으로는 비서구세계를) 바라보는 편견의 시각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유럽의 편견은 이후 미국으로 계승되었음은 물론, 비서구세계에까지도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이 지역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편, 20세기 중반 고전적인 인도학과는 별개의 남아시아 연구 흐름이 시작되는데, 이는 미국에서 새로이 체계화된 지역연구(area studies)의 흐름 속에서였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그 필요성이 부각되어 1950년대에는 학문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된 지역연구는 초기에는 정보의 습득을 위한 외국어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냉전체제로 인하여 미국 정부는 비서구 지역에서 일어나는 역동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공산권에 대한 정보와 이해의 필요성도 급증했다. 비서구세계에 대한 정부와 군부, 정보기관들의 관심에 힘입어 실용적 차원의 언어 습득에서 시작하여 정치, 국제정치, 인류학, 지정학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지역연구라는 흐름 속에서 남아시아 연구는 전(前) 시대에 형성되었던 유럽의 그것과는 달리 ‘비(非)문헌학적’이라는 특성을 갖게 된다. 현지어를 연구의 수단으로 삼고, 전문적인 사

<sup>3</sup> 여기서 ‘인도’란 국경을 경계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국가로서의 인도가 아니라 지리적으로는 인도아대륙, 문화적으로는 전통적인 인도문화권(Indosphere 또는 Indic cultural area)을 의미한다. 위에서 알버루니가 자신의 책에 사용한 ‘힌드(Hind)’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힌드는 근대 이후부터 종교와 관련된 용어로 받아들여지지만 그 기원을 따져보자면 인도아대륙 외부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하던 말이었다. 다양한 용어사용자들의 언어습관에 따라 힌드, 신드(Sind), 인드(Ind) 등으로 달리 불렸으나 모두 같은 어원을 가진 용어들이다.

회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지식을 생산하려는 노력은 지역연구의 긍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aid, 2000: 497-500). 한편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많은 대학에서 연구기관이 생겼고,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이것들은 모두 국가기관과 거대 재단들의 물적 지원에 의해 가능한 일이었다. 더구나 지역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역, 즉 러시아, 극동, 라틴아메리카에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여되었는데, 당시(1940년대, 50년대) 미국의 대외 정책이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곳이 바로 이들 지역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유네스코의 1952년 국제사회과학회보(International Social Science Bulletin)가 지적하고 있듯이 지역연구가 “사회과학(science of society)에 공헌하기보다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더 봉사했다”는(Wallerstein, 1998: 211-215, 218-220) 점 등은 당시의 지역연구 경향을 특징짓는 부정적 측면이었다.

이와 같은 지역연구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남아시아 지역은 냉전시대에 크게 매력적인 연구대상이 되지 못했다. 공산권도 아니었고,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첨예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는 ‘페르시아만에서의 전략적 이해가 확장’된 지역이며 ‘소련 세력의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만 약간의 관심이 주어졌을 뿐이다(Hardgrave, 1984: xi). 다만,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인구와 면적, 영향력 면에서 가장 중심적인 국가인 인도가 미국과 소련의 틈바구니에서 ‘비동맹’ 선언을 하며 일단의 제3세계 국가들을 이끌다가, 1970년대에는 소련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는 나라로 분류되었다. 공산권 내에서 소련과 중국의 긴장, 1970년대 초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개선이라는 강대국들 간의 구도 변화와 더불어 남아시아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적대관계가 계속되었고, 그 결과물로서 방글라데쉬라는 신생국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남아시아의 지역적 상황은 미국-파키스탄-중국과 소련-인도-방글라데쉬를 각각 묶는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로 분석되기도 했었다(Kapur, 1972).<sup>4</sup> 이것은 남아시아 지역이 냉전체제하에서 ‘미국의 눈’을 통하여 재해석되었던 한 예이며, 남아시아는 이러한 냉전구도 속에서의 전략적 의미 이외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

<sup>4</sup> 이러한 남아시아 국가들과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대한 연구는 인도계 캐나다 학자가 1972년 2월 미국 국무부에서 행한 강연을 기반으로 하여 논문으로 재구성된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했던 것이다.

냉전시대가 지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연구의 흐름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 변화는 과거 공산권에 대한 관심의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지정학적 위치상 미국의 안보에 직결된다고 생각되었던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관심이 희석되면서 (이미 7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아랍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강화되었다. 냉전시대의 군사적 긴장관계는 약화되었고 대신 해외경제정책이 미국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석유를 위시한 주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장과 투자처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것이 국제정치와 군사정책의 중요한 목적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지역연구에서 통상과 경제 분야는 연구대상으로서 전례 없는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브루스 커밍스(Comings, 1998: 310)가 지적하였듯이 ‘국경 없는 세계, 지구화의 진전, 인터넷과 웹 등의 통신이 가져온 혁명적인 변화, 다문화주의의 성장과 그에 따른 하위국가적인 충성심과 정체성의 강화’ 등 탈냉전기의 새로운 현상들로 인하여 다른 지역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시각 역시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sup>5</sup> 국제기구들의 확산과 역할 증대에 따른 관련 연구의 확대도 냉전 이후 시기의 연구 성향의 특징 중 하나이다(Comings, 1998: 310).

이 당시 남아시아 전체 인구의 77%, 면적의 73%, 경제생산의 75%를 차지하고 있던 인도는 1991년에 발표한 신경제정책으로 이전까지의 사회주의 기반의 혼합경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경제개방도 시작되어 세계경제체제의 일원으로 편입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고 있었다. 이러한 인도 내의 상황과 경제연구가 중시되던 당시 지역연구 성향이 맞물려 인도 경제, 특히 경제개방을 다룬 연구서들이 출간되었다.<sup>6</sup> 특히 인도가 세계 제2의 인구대국으

<sup>5</sup> 특히 1990년대 이후 영, 미 학계에 인도, 파키스탄인들의 진출이 눈에 띈다. 영국과 미국에서 출간된 연구서 중 미국 학자와 남아시아 출신 학자의 공저 또는 남아시아 학자의 단독저술 형태의 출간이 늘어났고, 남아시아의 각 대학에서 연구하던 학자들이 영, 미 대학으로 옮기거나, 또는 남아시아계 이민자 출신의 학자들이 대학에 자리 잡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는 모두 영, 미 학계에 ‘내부적 시각’이 소개되고 시각상 유연성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인류학적 연구전통에서 비롯된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는 현대의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sup>6</sup> 그러나 비슷한 시기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나 아랍지역에 비하면 양적으로 훨씬 적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는 남아시아 지역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세계경제에서 차지

로서 거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학문적 관심에도 영향을 미쳤다.<sup>7</sup> 또한 냉전 이후 변화된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남아시아 지역을 재조명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의 남아시아, 특히 인도의 위치는 다극적 체제하에서 나름의 지역질서를 구축하는 ‘지역강대국(regional power)’으로서, 또는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예비 강대국인 중국에 대한 경계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세력으로서의 역할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sup>8</sup>

한편, 과거 유럽 중심의 인도학 전통과 구분되는 또 다른 흐름은 현지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류학, 사회학적 연구로서, 이 역시 1947년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종류의 연구들도 서구 선진국들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하여 비서구세계를 탐구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국제정치학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과 동일하다. 대부분 미국정부, 각종 재단,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에 의해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인류학적 연구들은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대원칙하에 남아시아 사회 고유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주로 기여하였다.<sup>9</sup> 즉, 카스트, 힌두교, 촌락 등을 인도사회(그리고 일정 정도 남아시아사회)를 규정하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보고 인도인과 인도사회,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인도 고유의 카스트나 힌두교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김경학, 1999: 51-2). 이러한 인류학 연구는 철저한 현지조사에 기반을 둬으로써 텍스트 속에 고착된 남아시아를 서구의 시각으로 형상화시켰던 인도학 전통에서 벗어났으며, 특히 인

하는 비중 특히 미국과의 경제관계에서의 비중이 아직은 중국이나 중동 등의 지역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대표적인 인도 경제에 관한 단행본으로는 Lewis(1995), Frankel(2005) 등이 있다. 프랭클의 책은 1978년의 초판에 1990년대 이후 경제적 변화를 대거 보완한 제2판이다.

<sup>7</sup> 이 점은 인도가 경제개혁과 개방을 선포하기 이전인 1980년대부터 브래드록(Bradnock, 1990: 111)을 비롯한 학자들에 의하여 지적되었다.

<sup>8</sup> 대표적인 예로서 Frankel and Harding(2004)에 실린 일련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sup>9</sup> 이것은 중국의 공산화와 같은 상황이 인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미국정부의 우려의 산물이었다. 미국정부는 농업기술 향상, 토지개혁, 인적자원 개발, 교육, 생활수준 향상 등을 통한 농촌발전 프로젝트를 인도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하여 현지 사회 특히, 농촌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인 것이었다(김경학, 1999: 51).

도인의 세계를 범주화하기 위하여 그들 고유의 사고체계를 통한 연구를 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었다(김경화, 1999: 52). 앞서 언급한 인도학 전통이나 미국 중심의 국제관계학 맥락에서의 연구가 타자의 시선으로 남아시아를 바라보았다면, 인류학적 연구의 맥락 속에서는 내부의 시각으로 남아시아 지역, 남아시아 사람을 바라보려는 시도도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전통은 인도문화가 가진 고유하고 불변적인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과거 인도학 연구가 저질렀던 ‘무시간성’이라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기도 하다. 즉, 인도 사회는 고유한 힌두문화에 의해 규정된다고 하며 이 힌두 문화를 영속적이고 불변하는 ‘구조’로 보는 시각이 그러한데,<sup>10</sup> 이는 남아시아 사회를 정체된 촌락사회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오리엔탈리즘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도사회와 인도인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 제도로서 카스트와 힌두교를 지목함으로써 그 역할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했으며(Inden, 1990: 4),<sup>11</sup> 결과적으로 인도 또는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주제를 상당부분 한정시켰다는 부정적 평가를 피해갈 수는 없다.

### III. 우리나라의 남아시아연구 현황과 그 사회적 맥락

#### 1. 1970년대 이전

우리나라의 연구 흐름 속에서 남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며, 이 지역 내에서도 인도 이외의 다른 국가들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1970년대 이전의 인도 연구란 불

<sup>10</sup> Marriott and Beals(1955)가 미국인류학협회의 연구성과를 모은 바 있는데, 이 책으로부터 이러한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출신의 Dumont(1970)의 연구는 카스트를 불변의 구조로 보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sup>11</sup> 영국에서 발간된 ‘사회과학의 개념들(Concepts in the Social Sciences)’ 시리즈 중 한 편으로 카스트의 개념과 연구성과를 정리한 샤르마는 ‘이 책은 인도 사회학 교과서가 아님’을 강조하며 인도사회는 카스트를 중심개념으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harma, 2002: 3).



교와 같은 종교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학이나 철학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타 학문 분야에서는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성과물이 지극히 미흡하다. 종교나 철학, 문학도 한 지역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중요한 분야임에는 틀림없으나 지역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제한된 접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전통적인 인도 연구는 그 연구 분야나 내용으로 판단한다면 20세기 초반까지 유럽 국가들이 이끌던 ‘인도학’의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종교의 경전류나 고전적인 저술들을 중심으로 한 철학과 사상, 산스크리트, 팔리(Pali) 등의 고전어 연구, 문학 등 문헌 중심의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럽의 문헌학 전통과 실질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실제로 주제로 잡은 문헌을 섭렵한 끝에 도출된 결과물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가 일본 학계의 연구 성과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생긴 결과이며,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본 연구의 번역이나 답습에 그치는 연구 역시 상당수 발견된다(이광수, 1998: 119).

이와 같이 1970년대 이전 우리 학계에는 남아시아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인도는 불교의 탄생지, 베다 문헌이나 철학 서적 속에서나 존재하는 시간성이 거세된 관념으로서만 의미를 가졌다.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식민통치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인도와 우리나라는 식민통치하에서 동병상련의 감정을 교류하기도 했었지만(이옥순, 2006), 해방 이후의 냉전체제로 인하여 식민통치 경험과 분단, 전쟁이라는 유사한 운명을 겪은 두 나라는 서로를 이해할 통로조차 가지지 못했다. 더구나 인도는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 정부를 지지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자유중국 대신 공산당 정부가 상임이사국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에 군대를 진입시킨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UN 결의안에도 반대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인도의 비동맹외교 노선을 친공산권으로 인식하여 외교관계를 갖지 않았다. 남아시아 국가들 또한 비동맹외교를 추구하여 한반도와 등거리 외교노선을 유지하였다(김찬완, 2001: 100-101). 이렇게 인도가 ‘적국’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연구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 2. 1970~80년대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연구성과로 보았을 때 양적으로 주류를 이루었던 것은 종교학과 철학 관련 연구들인데,<sup>12</sup> 여전히 인도에 대한 관심은 사회과학보다는 인문학, 문헌학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독립 이후 인도공화국의 비동맹주의 외교노선, 힌두 민족주의 등의 정치학적 주제들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학 분야의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는데,<sup>13</sup> 이것은 힌디(Hindi) 문학작품들의 원전을 읽고 연구한 성과물들로서 비로소 현지 언어를 통한 본격적인 지역연구가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결과라 할 것이다. 역사학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연구가 시작된 분야의 하나였으나, 실제로 역사학 분야에서 나타난 연구성과들은 전통적인 인도 관련 연구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철학과 종교, 그리고 1970~80년대에 조명되기 시작한 정치 분야라는 학계 전반의 관심을 크게 넓히지는 못했다. 고대사의 경우 종교와 관련된 접근으로 일관하고 있어 고전적인 종교, 철학 연구의 연장선상에서의 관심으로 볼 수 있으며, 근대사의 경우에는 식민주의와 민족주의 연구라는 정치사 분야에 국한되고 있다.

1970년대는 인도 또는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친서방 외교정책이 비동맹 국가들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1970년대부터 비동맹 국가들과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국제 외교무대에서 북한을 압도하고자 하였다(김찬완, 2001: 101). 1973년에 비로소 인도와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되어 대사급 외교관계가 수립되었지만 이외에는 양국 관계를 개선할 만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인도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관심의 증대나 연구 활성화의 계기가 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대학에 인도어과가 처음으로 개설되어 본격적인 연구

<sup>12</sup> 199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남아시아 관련 연구 성과는 이광수(1998)의 글에 부록으로 실린 조사 결과를 참조하였다.

<sup>13</sup> 힌디 원전에 의거한 문학연구는 1982년에 처음으로 나타나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의 국내의 인도문학연구에 대한 리뷰는 임근동(1997)의 글을 참조했다.

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남아시아연구 전반에 의미 있는 일보를 내디딘 시기로 볼 수 있다.<sup>14</sup> 인도어과는 비록 인도의 19개 공용어 중 하나인 힌디어에 국한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지만 힌디어는 남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며,<sup>15</sup> 힌디어 사용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비교적 통용되기 쉬운 언어로서 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언어들 중에서 단연 중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연구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도구인 현지어 구사능력을 갖춘 연구자들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힌디 원전에 의한 문학 연구가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어문학을 가르치는 학과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성과라 할 것이다.

### 3. 1990년대 이후: 남아시아 ‘지역연구’

1990년대는 남아시아연구가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한 때라 할 수 있다. 비록 인도에 집중되는 양상이 계속되기는 하였으나 남아시아 관련 연구는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고, 다루고 있는 분야도 인류학, 정치학, 경제학,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크게 넓어져서 과거에 비해 다양성을 보였다. 이 시기에 시작된 유학생의 수적 증가는 향후 현지조사능력을 갖춘 보다 전문성 있는 연구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특히 인도와 남아시아 지역을 다루는 전문저널이 창간되고 학회가 창립되었다는 사실은 이 지역 연구자들이 수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연구활동도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산발적인 논문발표를 통한 개별적 활동뿐 아니라 학회와 저널을 기반으로 한 일관된 연구 경향을 이끌어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구 분야

<sup>14</sup> 한국외국어대학에 인도어과가 개설된 것은 1972년이며, 이후 1984년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에 인도어과가 개설되었다.

<sup>15</sup>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01년 센서스에 의하면 힌디를 모어(母語)로 보고한 사람은 약 2억 5천8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3.5%였다. 제2언어, 또는 제3언어로 사용하는 인구까지 합하면 약 4억 2천만 명(41.03%) 이상의 힌디 사용자가 있다. [http://censusindia.gov.in/Census\\_Data\\_2001/Census\\_Data\\_Online/Language/Statement1.htm](http://censusindia.gov.in/Census_Data_2001/Census_Data_Online/Language/Statement1.htm)(검색일: 2011. 5. 29).

에서의 담론 형성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는 의미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 남아시아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 것은 국내외의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구 대상지역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의 변모를 들 수 있다. 1991년 인도 정부는 신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점차 과거 사회주의식 계획경제의 틀을 벗어나 경제 자유화와 개방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의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인도 시장에 진출하게 되고, 경제교류 확대와 함께 자연스럽게 인도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화’가 외교, 경제정책, 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쳐 화두처럼 떠오르던 시기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계화의 구호에 맞추어 외국학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을 뿐 아니라 ‘지역연구’라는 국내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주제에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쏟아졌다(김경일, 1998: 8).<sup>16</sup> 이처럼 지역연구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남아시아 지역연구도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역연구 전반의 성장세가 남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미국, 유럽 등과 같이 기존 학문분야에서 높은 관심을 가져오던 지역이나 아랍, 구공산권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가 첨예한 지역들로 지역연구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동아시아와 아랍권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지역, 라틴아메리카지역 등 국가적 차원의 현실적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지역들은 지역연구의 급성장 시대에도 소외를 면치 못했다. 이는 지역연구의 급작스런 양적 팽창이 연구자들의 내재적 필요에 의해 제기되고 주도되었다기보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 외부에서 위로부터 추진되었던 당시 지역학 연구의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세계화라는 사회의 전반적 추세 속에

<sup>16</sup>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지역학’ 또는 ‘지역연구’라는 전공으로 학위과정이 생겼던 것은 1970년대였으나, 기존의 인식론적 분류와는 다른 방식의 분류법에 기반을 두는 지역연구는 그 입지가 지극히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해외에서도 기존의 인식론적 분류법에서 벗어나는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연구들, 예를 들면 여성학/연구, 환경학/연구 등이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여 개별 연구자들 중심으로 생겨나다가 대학에서 연구분야로 자리 잡은 것이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서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연구의 당위성 또는 존립 자체까지 의문시하는 풍조로부터 갑작스러운 지역연구의 급성장, 또는 ‘유행’ 풍조가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 중반 정부주도의 세계화 담론과 대폭적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서 지역연구가 한국의 정치적 생존과 경제적 이해관계의 극대화라는 동기에 의해 지지되어 급속하게 활성화되었던(김경일, 1998: 9-10)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밀접한 지역으로의 지원과 연구 쏠림 현상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아시아와 같이 정치와 경제를 포함하여 정책적 동기가 미약한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특정지역의 전문성을 추구하는 전문저널의 양적 팽창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1990년대에 주로 창간되었던 ‘지역연구’ 관련 저널들에 실린 논문 주제의 지역적 비중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인도 또는 남아시아 전문지임을 표방하는 국내 저널은 단 두 개임에 비하여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 ‘중국’이라는 키워드로 나타나는 국내 저널은 문학을 제외하고도 30개 이상이며,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경우에도 20개 이상의 전문저널이 발간되는 것으로 조사된다.<sup>17</sup> 또, ‘지역연구’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지, 또는 ‘아시아지역’ 연구를 표방하는 전문지의 경우 영문 저널과 우리말 저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발간되고 있는 것은 10종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에서 남아시아지역 또는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비교적 꾸준히 게재되고 있는 저널은 두 개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논문의 편수만으로 보았을 때 그 양적 비중은 미미하다 할 것이다.<sup>18</sup> 이 외에 기존의 인식론적 분류에 의한 분과학문을 주제로 하는 저널들에서도 간혹 남아시아 관련 연구를 찾아볼 수 있으나, 지역적 전문성과 분과학문적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

<sup>17</sup> 우리나라에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지역개념으로 종종 사용되는 ‘동북아시아’는 지리적으로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동북아시아’가 저널의 제목으로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sup>18</sup> 지역연구를 표방하는 저널들 중 남아시아 관련 연구를 가장 많이 실고 있는 것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국제지역연구』이다. 그러나 1997년에 창간하여 지난 14년 동안 게재된 총 681편의 논문 중에서 남아시아 또는 남아시아 국가를 주제로 다룬 논문은 27편에 불과하여 4% 미만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남아시아 관련 연구를 찾아볼 수 있는 저널은 국제지역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지역연구』인데, 이 경우 총 272편의 논문 중 15편으로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BRICs 국가 전체를 다룬 연구 결과들을 포함한 것이다. 연구의 성과를 논문의 편수로 계산하는 단순한 성과주의에는 반대하는 바이나, 국내에서 남아시아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단적인 지표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하고 있다는 전반적인 한계점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계재된 저널의 특성을 불문하고 발표된 연구성과들을 종합해보건대, 연구주제상 주목할 만한 특징은 경제, 통상 등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는 1990년대 이전에는 몇몇 석사학위논문을 제외하고는 연구성과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성장을 한 셈이다. 이러한 관심의 원인은 역시 1991년 인도 정부의 신경제정책 발표와 이에 이은 경제개혁, 개방으로 인도의 경제적 위치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우리나라에게는 시장으로서, 그리고 경제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왔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통상, 기업, 경제정책 등 경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반드시 경제학 분야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정치학 분야에서 경제정책 연구로 나타나기도 했고, 법학 분야에서 통상법이나 노동법, 분쟁해결방법 연구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경제 관련 연구들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투자환경이나 시장환경의 이해를 위한 수치적 분석, 경제정책, 경제성장과 시장에 대한 평가, 전망 등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대부분 계량적 분석을 담고 있거나 정부의 정책발표에 근거한 연구들로서, 남아시아의 지역적 고유성 또는 특정 국가의 특성과는 큰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연구였다. 또한 거의 모든 연구에서 현실적 상황이나 현실감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제와 관련된 연구의 증가를 환영하면서도, 연구의 편향이 심하다는 것은 사이드가 지적한 대로 한 지역이 '몇 가지의 태도, 경향, 통계상의 숫자로 환원'(Said, 2007: 498)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다변화도 병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남아시아 경제연구의 양적 성장은 현실적 수요가 연구를 촉진시킨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으며 정책과학으로서의 지역연구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국제정치 분야는 오히려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남아시아의 정세 분석이나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조명한 연구는 서너 편을 넘지 못해 경제관련 연구와 큰 대조를 보인다. 이는 남아시아 지역이 정치보다는 경제 분야에서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된다는 현실의 반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들 두 분야의 논문 저자들이 주로 지

역전문가라기보다는 분과학문의 전문가라는 점에서 볼 때,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경제나 통상 전문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남아시아 연구에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활성화된 남아시아 연구의 주된 흐름은 정책적 측면이 강한 국제정치, 경제 등의 영역보다는 남아시아 사회나 각 국가에 대한 인문학적 지식을 포함한 종합적 이해를 지향하는 연구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연구의 양적 분포로 보았을 때, 과거보다 비중은 줄었지만 문학과 어학, 철학 연구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류학, 역사학 등도 비교적 많은 성과물을 내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사회학이나 정치학 관련 논문들도 정책적 함의를 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성향의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연구는 대상지역이 지닌 문화와 가치에 대해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하여 대상지역의 내적 시각을 보다 중시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문화상대주의 입장은 서구의 인류학적 연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인류학 전공자들뿐 아니라 여타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인식론적 분류에 의한 분과학문의 전문가들보다는 지역전문가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한 학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 경향은 개인연구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유일의 대학부설 남아시아 전문 연구소인 '남아시아연구소'에서 지난 2000년 이래로 시행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주제를 살펴보면 어학, 문학과 함께 사회과학 연구 중에서도 인도 고유의 사회, 정치제도나 인도의 특수한 정치적, 사회적 현상 등을 다룬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sup>19</sup> 뽀짜야뜨(Panchayat)와 같은 고유의 자치제도와 그 현대적 부활에 대한 연구, 또는 남아시아 특유의 종교갈등과 그 정치적 의미 등에 관한 연구 등은 모두 대상지역의 내적 시각을 존중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부각시키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실시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결론 부분에서 인도에 대한 경제정책이나 진출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시킴으로써 정책과학적 함의를 드러내

<sup>19</sup> 남아시아연구소의 프로젝트 연구주제와 그 진행은 연구소 웹사이트에 나타난 내용을 참조하였다. 해당 페이지는 <http://isas.co.kr/intro/?cmd=history>(검색일: 2011. 5. 29) 등.

고 있으나, 연구의 전반적인 구조와 내용은 지역 자체에 대한 이해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남아시아 지역의 학술연구 경향과는 별개로, 전문적인 학술논문으로 분류되기는 어려우나 남아시아 지역을 다루고 있는 글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글들은 학문활동을 업으로 하지는 않으나 다른 분야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남아시아 지역의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쌓아온 전문가 집단들에 의해 쓰여진 것, 기존의 남아시아 제 분야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남아시아 지역에 관심 있는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쓴 글 등이 있는데, 경제단체, 기업체, 금융기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책자나 외교, 국방 등을 다루는 연구원, 국가기관 등의 정기간행물에 동향분석, 이슈분석 등 다양한 제목으로 실리고 있다. 이는 비록 전문적인 학술논문은 아니지만 그 양적, 질적 발전으로 인해 남아시아 연구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첫째, 기존의 연구를 비전문가들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대중적 글쓰기를 시도한 경우가 많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둘째, 어떤 간행물들은 지역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신고 있어 이것이 축적될 경우 오히려 전문연구자들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가질 수 있고, 셋째, 이러한 비학술적인 글쓰기 공간의 증가는 결국 남아시아 연구의 수요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IV. 향후 연구의 방향모색

지금까지 살펴본 해외와 국내에서의 남아시아 지역연구 동향에서 남아시아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 동시대의 학자들은 대략 두 경향으로 대별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정치학,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가 대세를 이루는 정책과학적 특성을 살리는 연구를 지향하는 학자들은 외부자적 시각을 가지고 대상지역에 접근하며 연구의 주제도 국제정치적 역학구조나 교역, 투자 등의 경제적 국제관계와 같이 보다 넓은 범위를 시야에 넣고



그 안에서 남아시아 또는 남아시아의 특정 국가(들)를 이해하려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연구의 수요, 필요성이 연구의 동력이 된다. 이와는 반대로, 인류학 연구에서 비롯한 현지조사 방법을 강조하고 지역이나 지역민들 자체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연구자들은 내부적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아시아 지역 자체의 특수성을 탐구하는 주제를 선호한다. 따라서 현실적 수요에 크게 좌우되지 않으며 지역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연구의 가치로 삼는다. 즉, 이 두 가지 경향은 연구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보편성 속에서 대상 지역을 이해하느냐 또는 대상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느냐의 차이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중 후자 쪽을 추구하는 경향이 현재 우리나라 남아시아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문화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경향은 국가 간, 사회 간 또는 지역 간의 비교를 배제하고, 따라서 이론의 검증이나 새로운 이론의 도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미시적이고 기술적인’(김경일, 1998: 10) 연구라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하여 기존의 인식론적인 연구분야 구분에 필적하는 유의미한 분석 단위로서의 ‘지역’의 위상을 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과 지역 사이의 관계, 대상 지역의 세계체제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등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관행은 특정 지역을 그 지역에만 존재하는 고유의 문화코드로 치환시켜 대상에 대한 ‘피상적 이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지구적 쟁점’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불가능하게 한다(김경일, 1998: 10). 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이 관행은 카스트와 힌두교라는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여러 가지 하위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의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구조’로 이해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아직도 이 두 현상은 인도 사회와 일부 주변국을 이해하는 중심적인 키워드로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sup>20</sup>

<sup>20</sup> 인덴(Inden, 1990)은 힌두교, 카스트, 촌락사회, 특유의 전제왕권을 오리엔탈리즘적 인도 이해의 4대 기둥이라 부르며 이들 개념의 지나친 강조가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카스트와 힌두교를 남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집중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나라의 연구 경향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 부작용으로 우리나라의 남아시아 연

그러나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는 다른 측면에서 사회과학연구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월러스틴(Wallerstein, 1998: 207)은 미국 사회과학연구협회의(SSRC)의 세계지역위원회(Committee on World Regions)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보다 정확한 지역 자료들의 수집과 지역 언어, 문화의 전문가들에 의한 과학적 분석이 축적된다면 '사회과학자들의 원죄'인 모호한 일반성을 수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시적 연구의 가능성을 평가했다. 이와 동시에 보편성과 이론화를 추구하는 기존 분과학문들의 성과들은 미시적 지역연구의 과도한 특수화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Wallerstein, 1998: 214). 이와 같이 미시적이며 개성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는 지역연구와 범칙정립적 분과학문분야 간의 바람직한 상호협력적 역할을 제안하고 있는 월러스틴의 글은 '특정 장소나 문화에 대한 총체적(holistic) 분석에 기초를 둔 설명틀을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서(Koppel, 1998: 319) 지역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지나치게 큰 범주를 일반화하여 개별 사례들에 대한 설명능력이 부족한 현재의 사회과학 이론의 한계는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보다 좁은 지역적 범주의 과학적 지식 생산을 목표로 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야시(林武, 1987: 291-295)는 이것을 '중범위이론'의 지향이라고 표현하며 지역연구가 나아가야 할 바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하야시는 거대이론의 결정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줄여 주는 지역연구의 유의미한 분석단위를 '국민국가'라고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국가라는 정치적 단위는 근대서구의 역사적 발전에서 비롯한 분류일 뿐이며 그 외의 다른 지역, 특히 남아시아 지역의 실정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sup>21</sup>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기에 앞서 지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하야시의 주장은 기존 분과학문들의 국가중심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범칙정립적 분과학문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지역연구의 필요성

구는 힌두교 문화권인 인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아시아에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이슬람 문화나 이슬람권 국가에 대한 연구는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부재한 상황이다.

<sup>21</sup> 설사 국민국가를 민족이라는 개념을 제외한 것으로 한정 짓는다 하더라도, 문화적 주체인 국민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다는 전제 역시 남아시아의 현실과는 동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신중히 선택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가가 분석 대상의 자명한 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가 단위를 연구의 기본 단위로 인식했던 것은 인류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존 사회과학 분과학문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며, 이는 국가들 간의 관계나 초국가적(trans-state)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Wallerstein et al., 1996: 109, 112). 국가 경계선에 의한 단위들의 연구가 세계 이해에 때로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sup>22</sup> 거대한 초국가적 단위로서의 지역, 또는 한 국가 내의 지역이나 국경을 가로질러 존재하는 국지적인 단위로서의 지역을 새로운 연구 단위의 하나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존하는 국가의 성립이 20세기 이후에 인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남아시아의 경우에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상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내부적 시각을 존중하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의 연구가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주체적인 세계관 또는 인식론의 개발이다. 앞서 오리엔탈리즘이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력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했거니와, 지금까지 학술연구의 주류를 이루어 온 서구, 특히 미국의 이론과 방법론을 수입하여 연구에 적용시키고 나아가 서구적 시각과 인식론까지도 수입해 사용해 온 것이 우리나라 사회과학, 그리고 일정부분 인문학의 모습이다. 물론, 남아시아 지역의 내부적 시각을 가지고 연구대상인 남아시아 지역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 자신의 주체적 세계관의 개발은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작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의 시각 전환은 현재 학술연구를 지배하고 있는 서구적 인식론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서구의 것이든 연구 주체인 우리의 것이든 또는 연구대상의 내재적인 것이든 다양한 시각과 인식론 자체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연구대상인 남아시아 지역의 내재적 입장과 이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역과 연구주체 사이의 특수한

<sup>22</sup> 이것은 근대 서구세계와 현대의 핵심제도로써 국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분석 단위로서의 국가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월러스틴 외(Wallerstein et al., 1996: 109-114)의 글을 참조할 것.

(때로는 보편적인) 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이론을 형성시키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 독자적인 이론은 우리의 시각과 인식론을 근간으로 하되, 대상의 특수성과 내재적 시각 또한 존중하는 것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프리윌(Prewitt, 1998)은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지역연구의 관계를 자연과학에 대한 공학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 즉, 공학이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때는 실험실에는 없는 조건들과 우연성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이 주제대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역사, 문화 등으로 불리는 우연성과 지엽적인 조건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연구의 당위성이 있다. 그리고 앞서 서술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의 생산과 주체적 세계관의 성립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고 연구에 임한다면 지역연구가 가진 ‘혼혈적 활력’(Prewitt, 1998: 250)을 기존의 연구에 끌어들이어 보다 바람직한 성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V. 맺으며

1970년대 이전 우리나라에서의 남아시아 연구는 2차 자료를 주로 이용한 종교와 철학 분야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다가 1970년대와 80년대에 그 관심이 종교, 철학 이외에 정치 분야에까지 확대되는 시기를 거쳐, 1990년대부터는 사회과학 제 분야의 연구가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지역연구가 시작되었다. 여타 사회과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남아시아연구 역시 우리나라의 고유한 시각이나 연구방법론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의 연구 동향과 방법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특히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해 타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학계가 서구로부터 받은 부정적 영향 중 대표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의 연구 경향은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분과학문 전문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부분으로, 법칙정립적 사회과

학 분야 중에서도 특히 양적인 성장을 보인 것이 경제, 통상관련 연구였다. 연구의 전통상 법칙정립적 사회과학의 분과학문들은 말 그대로 이론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일반화가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남아시아 경제, 통상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키지 못한 채 각종 경제지표로 나타난 수치나 정부 발표 정책의 평면적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다른 경향은 지역적 특수성을 보다 강조한 연구로서 지역전문가로 분류될 수 있는 연구자들이 주로 수행하였으며, 양적인 비중으로 보아 남아시아연구의 주도적 흐름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향의 연구들은 정책과학적 측면보다는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추구하며 일반화보다는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이들 두 가지 흐름은 바람직한 남아시아 연구의 전개를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대상지역의 내재적 시각을 존중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규명하려는 태도는 우리 학계에 일정 정도 내면화된 서구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상지역에 대한 특수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전체적 맥락을 놓치게 될 것이며, 남아시아 이외의 지역들과의 정치적·문화적 관계를 간과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남아시아가 특수하다면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의 특수성을 가지는 것인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편성과 일반화를 추구하는 접근방법 역시 대상지역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하나의 지역과 그 지역민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이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의 남아시아 연구 경향을 고려한다면 각 분과학문 전문가들의 지역 연구와, 지역에 대한 기본적 소양과 현지 조사 능력 등을 강점으로 하는 지역전문가들의 연구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으로는 법칙정립적 사회과학과 기술적(記述的) 방법을 중시하는 분과학문들 간의 학제 간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보다 넓은 맥락에서 남아시아의 위치를 설정하고, 동시에 지역 내의 다양한 사회, 공동체들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

도 함께 밝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투고일: 2011년 5월 10일 | 심사일: 2011년 5월 22일 |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23일

## 참고문헌

- 김경일 편저. 1998.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서울: 문화과학사.
- 김경학. 1999. “지역연구의 특수성과 보편성: 인도에서의 현지조사를 토대로.” 『남아시아 연구』 4권, 47-62.
- 김찬완. 2001. “한국에서 남아시아 지역연구 동향과 과제.” 『국제지역연구』 5권 2호, 95-116.
- 이광수. 1998. “남아시아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상섭·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 현황과 과제』, 117-153.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옥순. 2006. 『식민지 조선의 희망과 절망, 인도』. 서울: 푸른역사.
- 임근동. 1997. “인도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국내인도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인도연구』 2권, 17-29.
- 林武. 1987. “地域研究の現状と方法.” 矢野 暢(編)(1987), 285-311.
- 矢野 暢(編). 1987. 『地域研究』. 講座 政治學 第IV巻. 東京: 三嶺書房.
- Ahmed, Akbar S. 2002. *Discovering Islam: Making Sense of Muslim History and Society*. London, New York: Routledge.
- Bradnock, Robert. 1990. *India's Foreign Policy Since 1971*.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 Comings, Bruce G. 저. 김홍중 역. 1998. “연구 영역의 전이: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지역연구와 국제연구.” 김경일(1998), 261-317.
- Dumont, Louis. Mark Sainsbury · Louis Dumont · Basia Gulati (trs.). 1970. *Homo Hierarchicus: The Caste System and Its Impli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rankel, Francine R. 2005. *India's Political Economy, 1947-2004: The Gradual Revolution*.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Frankel, Francine R. and Harry Harding, eds. 2004. *The Indo-China Relationship*:

- What the United States Needs to Know*.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rdgrave Jr., Robert L. 1984. *India under Pressure—Prospects for Political Stability*. Boulder and London: Westview Press.
- Inden, Ronald. 1990. *Imagining India*.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Kapur, Ashok. 1972. “Strategic Choices in Indian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27(3), 448-468.
- Koppel, Bruce M. 저. 문현아 역. 1998. “지역연구와 발전연구: 피난민들인가 개척자들인가?” 김경일(1998), 318-356.
- Lewis, John P. 1995. *India’s Political Economy: Governance and Reform*. New Delhi,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rriott, McKim and Alan R. Beals, eds. 1955. *Village India: Studies in the Little Community*.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 Prewitt, Kenneth 저. 김은식 역. 1998. “1980년대의 지역연구.” 김경일(1998), 247-260.
- Said, Edward 저. 박홍규 역. 2000.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 Sharma, Ursula. 2002. *Caste*. New Delhi: Viva Books (Concepts in the Social Science series).
- Wallerstein, Immanuel 저. 조현범 역. 1998. “냉전기 지역연구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김경일(1998), 205-46.
- Wallerstein, Immanuel et al. 저. 이수훈 역. 1996. 『사회과학의 개방 — 사회과학 재구조화에 관한 필베키안 위원회 보고서』. 서울: 당대.
- [http://censusindia.gov.in/Census\\_Data\\_2001/Census\\_Data\\_Online/Language/Statement1.htm](http://censusindia.gov.in/Census_Data_2001/Census_Data_Online/Language/Statement1.htm) (검색일: 2011. 5. 29)
- <http://isas.co.kr/intro/?cmd=history> (검색일: 2011. 5. 29)

---

**Abstract**

## South Asian Studies: A Review of Trends and Problems

Ji Eun Lee *Jawaharlal Nehru University*

---

This study reviews the research history of South Asian studies in Korean academia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Unfortunately, the perspective and methods of South Asian studies by Korean scholars have been modeled on the Western perspective in South Asian studies, which is an Orientalist view that seriously distorts the true non-Western world. It is also pointed out that Korean trends of South Asian studies are not free from the influence of this Western idea.

Before 1970, researches in the areas of religion and philosophy heavily relied upon secondary sources. Researches undertaken by Korean scholars in the 1970s and 80s show that their academic interests went beyond the fields of religion and philosophy to that of politics. From the 1990s, there has been a constant development in South Asian studies by Korean scholars in terms of both quantity and quality of research, dealing with topics in various new branches of studie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wo distinctive trends dominated South Asian studies in the 1990s and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One trend, which shows up mainly in the studies of nomothetic approach in social sciences, emphasized universality with the aim of formulating theories through generalization. The other trend, which exceeds the former in number of research,



emphasiz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area by using idiographic approach, ultimately aiming for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South Asia.

For development of South Asian studies, future scholars should pursue both universality and uniqueness of research area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two trends. This way, Korean scholars can be better aware of the co-existing internal and external perspectives, which will help them to come up with unique findings and theories of their own.

**Keywords |** South Asia, India, methodology, area studies, South Asian studies, Orientalism

